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23.(수) 06:00 < 10.23.(수) 석간 > 배포 2024. 10. 22.(화)

도레이사(社), 첨단산업 핵심 소재 생산기반 구축에 1억불 이상 투자

- 슈퍼섬유인 아라미드 섬유, 자율주행·AI 구현에 필수적인 MLCC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 공장 증설로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10월 23일(수) 경북 구미에서 개최된 일본 도레이사(社)의 미래 첨단산업 핵심 소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도레이는 1963년에 국내에 섬유 제조 공장을 설립한 이후, 고성능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차전지 분리막·고성능 탄소섬유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지난 60여 년간 누적 투자금액은 약 5조 원으로 일본 제조업 기업 중 최대 규모이며, 약 4천 명에 달하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도레이는 지난 4월 산업부 안덕근 장관 방일시 아라미드 섬유 투자 계획을 신고하였으며, 5월에는 25년까지 첨단소재 분야에 총 5,0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산업부·경북도·구미시와 체결한 바 있다. 오늘 기공식을 통해 도레이는 1억 불 이상을 투자하여 아라미드 섬유 및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설비 증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투자 대상인 아라미드 섬유는 초고강도(강철대비 5배)·초고내열(500℃) 슈퍼섬유로 전기차 구동모터·내열 보호복 등에 사용되는 첨단소재이며, 폴리에스터 필름은 전기차·AI기기·자율주행 부품에 적용되는 적층형 세라믹콘덴서(MLCC)용 핵심소재로 생산기반 구축 시 국내 공급망 강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도레이의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북도, 구미시와 함께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도레이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대(對)한국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엄재영 (044-203-4080)
		담당자	사무관	오유경 (044-203-408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도레이첨단소재 구미 생산공장 기공식 행사 개요**

1. 행사 개요

□ 배경 : 도레이는 경북(구미) 內 폴리에스터필름(구미5공장) 및 아라미드(구미1공장) 생산설비 증설투자를 결정하고, 동 공장의 기공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24.10.23(수) 10:30~11:30, 도레이첨단소재 구미5공장*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5공단로 272

□ 주요 참석자

○ (정부·유관기관)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박교상 구미시의회의장

○ (도레이) 日 도레이 닛카쿠 아키히로 회장, 韓 도레이 그룹 이영관 회장, 도레이첨단소재 김영섭 대표이사

2. 세부 행사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8	8′	▪ 개식 선언 및 내외빈 소개	
10:38~10:45	7′	▪ 사업개요 및 경과보고	
10:45~11:25	40′	▪ 기념사·치사, 축사	① 기념사 및 치사(韓 도레이 사장, 日 도레이 회장) ② 축사(산업부 투자정책관, 주한일본대사,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구미시의회의장)
11:25~11:30	5′	▪ 기공 Ceremony 및 기념촬영	*버튼세레머니
12:00~		▪ 폐회 및 이동	